

KIA 이의리 안방서 반전의 무대 펼칠까



KIA 타이거즈 이의리가 안방에서 반전의 무대를 펼친다. 1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예정됐던 KIA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6

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이와함께 KIA의 삼성전 두 번째 스윙 도전은 비로 무산됐다.

지난 4월 시즌 첫 대결에서 삼성을 상대로 안방에서 스윙승을 거뒀던 KIA는 원정길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다.

5연패 부진 속에 치러진 16일 경기에서 황대인의 솔로포와 소크라테스의 스리런으로 8-2 승리를 거뒀다. 연패에서 탈출한 KIA는 17일에도 7-6으로 이기면서 삼성전 5연승을 거뒀다.

KIA는 18일 이의리를 앞세워 다시 한번 스윙을 노렸지만 비로 하루 휴식을 보내게 됐다. 이의리는 하루 늦춰진 19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앞선 첫 대결에서 KIA는 키움에 스윙패를 당했다. 까다로운 상대와의 승부, 3연전을 여는 이의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의리는 올 시즌 7경기 나서 2.8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발로서 역할이 부족했다.

7경기에서 이의리가 소화한 이닝은 31.1이닝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아웃카운트를 책임진 경기는 4월 19일 롯데전으로 5.2이닝 3볼넷 8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그나마 5회까지 책임진 경기는 이 롯데전 포함 3경기 밖에 되지 않는다. 4월 8일 두산전 3이닝 2실점, 4월 25일 NC전 4이닝 1실점, 4월 30일 LG전 4.2이닝 3실점, 5월 12일 두산전 4이닝 2실점이 올 시즌 이의리의 기록이다.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12일 두산전에서 4회를 끝으로 투구수가 101개에 이르면서 5회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세 경기 연속 5회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오늘 키움과 홈경기 선발 등판 올 시즌 7경기 31.1이닝 그쳐 5회 책임지는 효율적 투구 절실

이의리의 효율적인 투구가 절실하다. 올 시즌 이의리는 150km가 넘는 공을 뿌리면서 평균 구속 146km를 넘는 강속구 투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7경기에서 기록된 탈삼진은 38개. 단순 탈삼진 개수로는 양현종(37.1이닝)이 41개로 팀 내 1위, 앤더슨(47.1이닝)과는 38개로 같다. 이닝까지 고려하면 이의리의 탈삼진 페이스가 가장 두드러진다.

문제는 제구다. 이의리는 29개의 볼넷을 기록하면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거의 매일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신인이었던 2021년 1.32, 지난해 1.31이었던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도 올 시즌 1.79까지 뛰어들었다.

위기가 많다 보니 투구수가 늘어나고, 이닝은 줄어들고 있다.

자신 있고 빠른 승부로 타자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 이의리는 상대 타자들은 물론 동료들도 인정하는 무시무시한 구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힘과 힘의 싸움을 하기도 전에 공이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나면서 마운드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프로 입단과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을 했고, WBC 대표팀에도 선발되는 등 이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만큼 부담감도 커지면서 이의리의 생각도 많아졌다.

팀은 물론 KBO를 상징하는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의리지만 이제 프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은, 아직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선수이기도 하다. 자신과 수비수를 믿고 젊은 투수의 패기를 보여줘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죽음의 조'

파리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북한·중국·태국과 B조 편성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 중국과 경쟁하는 '죽음의 조'에 배정됐다.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8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하우스에서 진행한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조 추첨에서 북한, 중국, 태국과 B조에 편성됐다.

북한은 최근 국제대회에 나서거나 평가전을 치르지 않아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가 없지만, 엄연히 아시아의 강호로 손꼽히는 팀이다.

한국은 북한과 상대 전적에서 1승 3무 15패의 절대 열세다.

2005년 8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컵(동아시아컵)에서 1-0으로 이긴 게 북한을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다. 한국은 이후 북한에 12경기

(2무 10패) 무승을 기록 중이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7년 7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컵에서 이뤄졌으며 북한이 1-0으로 이겼다.

중국도 넘기 힘든 상대인 것은 마찬가지다. 중국은 FIFA 순위에서 13위로 한국(17위)보다 4계단 높을 뿐이지만, 통산 전적에서는 한국에 29승 8무 4패로 확연한 우위를 보인다.

한국이 중국에 승리한 것은 2015년 8월 중국 우한에서 열린 동아시아컵(1-0 승)이 마지막이다. 한국은 이후 중국에 9경기(3무 6패) 무승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3번 포트 배정에서마저도 운이 따르지 않았다. 태국(44위)은 3번 포트 3개국(필리핀 49위·우즈베키스탄 50위) 중 FIFA 순위가 가장 높은 팀이다. /연합뉴스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가 18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2022-2023 UCL 준결승 2차전에서 두 번째 골을 넣고 열광하는 팬들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시티, 챔스 결승 진출 '트레블' 노린다

UCL 준결승서 레알 5-1 꺾어 EPL 선두·FA컵도 결승 진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홈에서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에 4점 차 대승을 거두고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맨시티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UCL 준결승 2차전에서 베르나르두 실바의 멀티골을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에 4-0으로 크게 이겼다.

지난 10일 원정 1차전에서 1-1로 비긴 맨시티는 1, 2차전 합계 5-1로 앞서며 결승행을 이뤘다.

맨시티는 AC밀란을 합계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선착한 인터 밀란(이상 이탈리아)과 내달 1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우승컵 '빅이'를 놓고 격돌한다.

두 팀은 공식전에서 맞붙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프리시즌 친선 대회에서 두 차례 대결해 1승 1

패를 기록했다. 맨시티는 첼시가 저 준우승에 그쳤던 2020-2021시즌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UCL 잔혹사'를 끝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맨시티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 자비에 인수된 뒤 프리미어리그(EPL)에서 6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강호로 자리매김했으나 UCL 무대에서는 좀처럼 정상에 서지 못했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UCL 우승을 2차례나 지휘한 페프 그라디올라 감독을 2016년 사령탑으로 앉힌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UCL에서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만 만나면 더 작아졌다.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무릎을 꿇은 경험만 2차례였는데, 이번엔 '징크스'를 확실하게 지워버렸다.

EPL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 결승에도 올라가 있는 맨시티는 '트레블'(3관왕) 달성에 한발 다가섰다.

EPL 구단이 UCL 우승을 포함한 트레블을 이룬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이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독이 이끌던 1988-1999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통산 15번째 UCL 우승 도전을 멈춘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코파 델 레이(국왕컵) 우승 트로피를 하나 수집하는 데에 만족해야 한다. 라리가는 FC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다.

이날 맨시티는 전반전 완벽한 경기력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숨막히게 했다.

전반 23분 케빈 더브라위너의 침투 패스를 골 지역 오른쪽의 실바가 가까운 쪽 골대를 겨냥한 강한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13분 뒤에도 실바가 골 맛을 봤다. 일카이 킨도안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튀어 오르자 실바가 재차 헤더를 시도해 2-0을 만들었다.

후반 36분에는 더브라위너의 프리킥 크로스에 이은 마누엘 아칸지의 헤더가 레알 마드리드 밀리탕의 몸을 맞고 골대로 들어갔다. 이는 아칸지의 골로 기록됐다. 맨시티는 후반 46분 필 포든의 침투 패스에 이은 윌리안 알바레스의 썩기골로 결승행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스타 등용문' U-20 월드컵 축구 프랑스·온두라스·감비아와 F조

김은중호, 23일 프랑스와 1차전

고(故) 디에고 마라도나,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세르히오 아케로(은퇴)는 아르헨티나 대표 축구 스타라는 점 외 공통점이 있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마요르카)도 이를 공유한다.

이들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상 격인 '골든볼'의 주

인공들이다.

'스타 등용문'으로 불리는 2023 FIFA U-20 월드컵이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3시 아르헨티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와 산후안에서 A조 과테말라-뉴질랜드, B조 미국-에콰도르의 경기로 화려하게 개막한다.

통산 23회째를 맞는 올해 U-20 월드컵은 이날 개막해 내달 12일 라플라타에서 열리는 결승전까지 23일간 이어진다.

'어게인 2019'를 가슴에 품은 김은중호는 프랑스, 온두라스, 감비아와 함께 F조에 묶였다.

가장국인 아르헨티나와 그와 인접한 강호 우루과이 등을 모두 피하고 프랑스와 함께 묶인 이번 조 편성을 놓고 '그나마 무난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프랑스가 한국과 상대 전적에서 4승 3무 1패로 크게 앞서는 데다 2013년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한 강팀이지만, 김은중호로서는 아르헨티나·우루과이 팬들의 극성맞은 응원을 피하게 된 점이 다행스럽다.

김은중호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프랑스와 F조 1차전을 펼친다. 26일 오전 6시 온두라스와 2차전, 29일 오전 6시 감비아와 3차전을 치른다.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맨도사의 맨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